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 윤리 중의 윤리

### (에베소서 6:1-4)

십계명 중 제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령의 교훈이며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중의 윤리입니다.

#### 1. 바른 가정관

제5계명이 주는 교훈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제각기 다른 방향의 교훈을 주고 있는 가운데 네 가지 계명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중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국가, 세 번째 주신 제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일을 할 때 남자 혼자 하라고 하지 않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서로 도와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일입니다.

#### 2. 제5계명이 주는 교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부모, 알지 못하는 조상의 무덤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마음편안하게 해드리고, 잘 공경하며 기쁨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2)의 말씀은 기독교인의 윤리 중의 윤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모든 자식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자 중의 교육자이며 그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며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와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느냐”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가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교육을 바르게 하고, 부모를 기쁨으로 공경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Moral among morals

### (Ephesians 6:1-4)

The fifth of the Ten Commandments teaches us that we must honor our father and mother. This is the ethic of the Spirit, and this is the ethic among all ethics that human beings must keep.

#### 1. The right concept for the family

The lesson that the fifth commandment gives us is not only that we must simply honor our father and mother but that Go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He has given us. Although the commandments give us morals in different directions, we recognize that four out of the Ten Commandments are related to the subject of family. Based on this, we can see that God places great value on the family.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provided human beings with three important institutions: the first is family, the second is nation, and third is the church.

The reason why God gave us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was to conquer the land and rule over the country through our lives in the world. God did not leave man to be alone to do his work but gave him a woman as a spouse to help him. Therefore, a man and a woman form a home, assist each other, and become one flesh in order that they might follow God's command.

#### 2. The instruction of the 5th commandment

There are some who believe that if we become a Christian in this country, and do not perform our ancestral rites, we are being disobedient to our ancestors. However, we are not acting in obedience when we go to a tomb, prepare food, and hold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 whom we have never met or for our dead parents. Rather, we are truly obeying when we help our parents live comfortably, honor them, and make them happy while they are alive. Therefore,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n the Lord" (Eph. 6:2) is an ethic in the midst of all Christian ethics.

The way in which we honor our parents is by thanking them for their love. We find deep gratitude when we recognize their limitless love. A mother is the cradle for her children. She is a teacher above all teachers who teaches her sons and daughters, and her love is the love of patience. What about the love of a father? The father's heart is the heart of God. The father's heart is a heart of waiting and forgiving. Our father and mother have raised us with love.

Just as this Scripture indicates, "If you do not serve your parents whom you have seen, how can you serve God whom you have not seen?", Christians must not only honor their parents but also become this kind of parent.

#### My beloved Christians!

The Christian family must be a home that recovers this nation for Christ. Each home must b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 families, until each family is renewed day by day. As you teach your children rightly and honor your parent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uild a home that pleases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10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

## 강사: 이종윤 목사 -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

2010 사명자 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24시간 연속기도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시간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고, 11월19일(금) 오후7시까지 2578명이 릴레이 성경읽기에 참여하였고, 성경12독을 통독중에 있다. 정해진 시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열열이 기도(다니엘 기도), 70인전도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도, 대회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씩 전도하는 태신자 작정으로 2010 사명자 대회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대회의 6가지의 공동기도제목을 붙잡고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삶과 올바른 신앙의 체계정립을 이루는 시간을 갖는다. 아직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은 잠을 조금만 줄이는 희생으로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또한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이종윤 목사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한다. 11월27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한 24일간 계속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사명자

# 11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6독> 김종자 권사(14교구)
- <3독> 하정자 권사(3교구) 김대호 장로(8교구) 박명석 권사(12교구)
- <2독> 윤만현 권사(2교구) 민정이 집사(4교구) 박창희 집사(5교구) 엄정순 권사(6교구) 오은이 권사(6교구) 유을상 집사(6교구) 윤순희 권사(6교구) 송옥해 권사(9교구) 이경희2 권사(11교구) 권순덕 권사(13교구) 김미성1 집사(13교구) 주화인 권사(13교구)
- <1독> 박상희 집사(1교구) 송성태 집사(3교구) 최자순 집사(4교구) 김희진 권사(6교구) 양지훈 집사(6교구) 남순덕 권사(8교구) 홍순복 사모(9교구) 김경희7 권사(10교구) 진돈 장로(10교구) 박화실 집사(11교구) 김예환 권사(12교구) 이인선 권사(12교구) 전숙향 집사(12교구) 김동진 집사(13교구) 김정애2 권사(13교구) 김애순1 집사(13교구) 김현주1 집사(13교구) 이용숙 성도(13교구) 강소영 집사(16교구) 장양일 집사(16교구)

# 교회설립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집사, 권사 임직 · 선교사 파송식 거행

## 11월2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11월28일(주)을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주일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갖고,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설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제11대 집사, 제10대 권사 임직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갖는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설립주일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 장로교 1교단 다체제 연합운동 계속되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이종윤 목사)가 제안한 장로교 1교단 다체제 연합운동의 기치 아래 지난 9월 16일 예정 9개 교단 연합총회가 결성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5회 통합총회가 지난 10월 25일 청주은성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예정개혁총회, 예정합동

보수총회, 개혁총회 등 3개 교단이 통합을 선언했다. 이번 통합총회에서 3개 교단은 신학과 신앙이 동일함을 서로 확인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개혁주의 보수신학과 신앙을 지켜갈 것을 다짐했다.

## 금주의 성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18)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Luke 4:18)

## 새가족부를 마치며



오상수 성도(13교구)

새 가족으로 등록과 더불어 안 내로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부 전체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교육 후 식사와 마무리 기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빈틈없이 따뜻하고 편안하여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부부는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네"하고 지금껏 개근하면서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목표를 향해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새가족부가 충분한 Teamwork 을 갖추고 있음을 몸소 느끼며, 즐기며, 확인하였습니다.

수료 후 바로 뒤이어 신앙 강좌 2반에서 성경공부 하는데도 반별로 주제발표 후 큰 주제에 의한 딱 부

# 본질에 충실한 삶

리진 말씀 강의는 또 다른 흐뭇함을 느끼게 합니다. 내년도 봉사활동에 부서를 정해 신청하라는 말씀에 우리 부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일 2부 예배 시 감동적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에서도 매일 성경 한 장 전체를 교독하고 오직 말씀 내용만으로 설교하시는 박노철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말씀 증거는 저를 자리에 더 오래 동안 앉아 기도케 하는 말씀에 충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대로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막 물이 차 건너기 쉽다는 믿음을 향한 교회문화에서 이제 막 발목까지 찬 믿음에 있다 하겠지만 앞으로 무릎, 허리에 차기까지 더욱 깊어져 유유히 헤엄치며 성령

의 열매로 유행할 수 있음을 우리 교회 각 영역별 Teamwork 과 문화에서 자신감을 얻는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우리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 내용은 감히 더 언급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늘 "본질에 충실하라"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특별새벽기도회에서의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는 우리 이종윤 위임목사님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룩하신 서울교회의 모습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 모두는 이곳 서울교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이는 오직 성령이심을 깊게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형제자매 분들에게 늘 기도하여 주실것을 소망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이종운 · 박사이종운 - 목회자의 길 18

# 이종운은 일교단 다체제를 발표한다



2009년 7월 11일 제1회 장로교의 날 전경

몇주전 근목수련회에 이종운은 강사로 초청되어 특강을 한 후 head table에서 환경직목사와 국방부장관등과 식사를 하게 된다. 한목사께서 “이종운목사님, 우리 장로교회는 본래 하나였는데 지금은 많이 갈라져 있어 좀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다시 하나가 될 터이니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께서 우리 통합교단에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하자 옆에 앉아 있던 관석회목사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다. 그 후 새문안교회 김동익목사가 “선배님 우리 교단 오시도록 길을 잘 마련해 놓을 터이니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초청에 응하시면 됩니다.”라는 전화통화를 준다. 그리고 서울강남노회 증경노회장 7분이 이종운을 찾아왔다. 우리가 잘 모실테니 우리 노회로 들어오시라 한다. 공교롭게도 그 7분은 모두 이종운의 제자들이었다. 안팎으로 사안이 무르익게 되자 이종운은 방향을 정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서울강남노회에 가입을 한다. 강남노회는 생긴 지 얼마 안되는 신생노회지만 한국을 대표할만한 긍지와 자질을 갖춘 노회였다. 이종운은 노회장이 되어 월간회보 발간, 부활절 연합예배, 회의비 지출을 막아 전도비로 1억원의 저금통장과 5,000만원 이월금까지 남겨 주면서 노회 분위기를 쇄신시켰다.

장로들은 노회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여겼다. 아무도 통합측 가입을 후회하거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벌려 총회에 미자립교회돕기 운동을 시작케 했고, 이로인해 총회장 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100년동안 사용하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해 달라는 헌의를 서울교회 당회가 제출하여 총회, 한기총, 교회협의회가 각기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종운이 각각 위원장이 된다. 총회주제위원회 조직을 청원하여 10년간 주제위원(장)으로 봉사하므로 전국교회가 매년 같은 주제로 목회방향을 잡고 해설집을 출판한다.

할렐루야교회에서는 설교(preaching)로, 중현교회에서 기도(prayer)로 서울교회에서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목회의 지침을 삼았다. 이것을 열렬히(Ardent), 성경적으로(Biblical), 일관성(Consistent)있게 목회지침을 삼아 Ardent Prayer, Biblical Preaching, Consistent Program을 소위 ABC 3PR로 정의한다. 서울교회 설립된지 6개월만에 국제세미나인 KIMCHI를 시작한다. 지난20년 동안 145여개국에서 1,000여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훈련을 받고 자국복음화 위해 귀국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듯 지금 이종운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찬양한다. 한국장로교 연합을 위해 보수도 진보도 인정할 수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있던가. 목사, 박사 이종운은 세계보수 신학의 요람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산실로 장로교 신학교중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원(PCTS)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나님의 묘한 이치라 아니 할 수 없다.

2009년도는 장로교인들에게 뜻깊은 해였다. 요한칼빈탄생500주년을 맞이하여 이종운은 한국장로교 신학회 회장으로 칼빈신학회와 개혁주의 신학회를 연합하여 칼빈500주년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초교파적으로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방대한 조직속에

급진주의자도 극우파도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6월22일 개회예배를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행했던 예배행식을 따라 성찬식까지 행하고, 기념음악회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이종운과 프랑스 신학자 Paul Wells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칼빈 신학 확산에 공헌한 이들에게 표창도 했다.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문진도 만들어 선물했다. 이날에는 70편의 칼빈 관련 논문을 읽었다. 한국의 칼빈과 관계를 가진 학자들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논문이 출판되고 중요한 논문들은 영어로도 출판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상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운은 당일 대전정부청사 공무원 교육하러 지방에 가는 동안 차안에서 모교단 총회장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돌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장총 상임회장이 된 이종운은 첫 임원회에서 장로교의 날을 칼빈 생일인 7월10일로 정하고 해마다 장로교인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자는 제안을 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 200여개이상 갈라진 장로교회가 하나로 모여 장로교의 날 행사를 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첫 발은 내디딘 셈이다. 연합과 일치라는 주제로 26개교단이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해 연말에 이종운은 한장총 대표회장이 된다. 장로교 공동신앙 고백서를 제정하고 신학교 인준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장총 발전대토론회를 열어 일교단 다체제를 발표한다. 결국 제2회 장로교의 날에 28개 교단장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로교 1교단 다체제안이 제안되었다. 끝같은 얘기다. 철부지들의 노래소리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1910년 에딘버러선교사대회100주년 기념사업회를 2009년도에 조직하여 2010년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대회, 인천대회, 부산대회를 개최했다. 미국의 Paul Pierson박사와 이종운은 기조강연을 통해 선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회는 한국선교신학회,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로잔한국위원회, 김치(KIMCHI), CWM, 한국기독교학술원, 부산세계선교협의회가 연합하여 KAM(Korean Association of Mission)을 조직하여 주최케하고 명예대회장에 Samuel Moffatt, 대표교인 방지일목사를 모시고 이종운이 대표대회장이 되어 서울교회에서 개회예배와 환영만찬을 하고 장신대, 주안장로교회, 부산수영로교회에서 100편의 선교 논문을 읽는 아카데미한 선교학술 대회를 했다.

2010년 6월 28일 오후2시부터 무려 5시간동안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로 알려진 WCC문제를 기독교학술원(이사장:이훈순 원장:이종성)주최로 한기총과 기독교교회협의회 후원으로 백주년 기념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를 발의, 진행, 마무리를 이종운이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이끌었다. 그리고 WCC와 한국교회에 보내는 제안문을 작성 발표했다. 전천후 폭격기처럼 이종운은 어떤 기후변화나 지형지물이 가로 막아도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다음 호 계속)

사명자의 기도

##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던 청년 사랑에 비해 과연 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줍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보다 그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하는 참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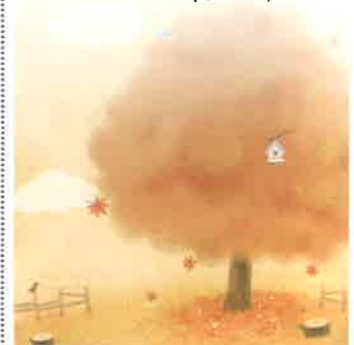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2010년 청년1부 조장이라는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가르쳐 주셨고, 조원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크신 사랑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기간 중 부족한 저를 청년1부 부회장으로 세워주시는 큰 축복을 주셨고, 리더로서 섬겨야 할 그리고 지켜야 사명이 무엇인지 뼈속 깊이까지 알게 해 주신 정말 특별하고 은혜로운 새벽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는 일인지 몰랐던 과거의 제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 느끼길 바라며, 왜 부족한 저를 쓰시냐고 원망하기보다 그런 저를 쓰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응답받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리는데 새벽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교은 (청년1부)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로 부르받아

## 아름다운 기도의 동행

이종길 · 홍미영선교사  
(말레이시아파송예정)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도는 행복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영락기도원에 가서 깊은 밤까지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번동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은행으로 출근하곤 했습니다. 은행업무보다 기도에 더 열정이 있어 마땅한 기도처를 찾지 못해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직장동료가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나도 교회가면 안 되겠느냐?” 해서 얼떨결에 전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목회동

역을 하는 동안 가장 기뻐던 것은 기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기도실에서 웨스트민스터홀에서의 기도시간은 결코 잊지 못할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시 91:1) 들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저버 제사 같이 되기를(시 141:2) 간절히 소원합니다.

##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할바로다

히인선 장로(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시편 33:1)

시절을 좇아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은 우리교회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창립한지 20년이 되는 우리교회는 어느덧 멋진 청년의 모습이 되었고, 또 한 세기를 맞는 중대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모든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4일(수)장신대 채플 설교, 25일(목)한장총 28차 정기총회, 26일(금)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단 모임을 소집한다.

■ 이사 : 김원웅 집사, 김규희 집사(6교구) 서울시 은평구 전관동 5단지 527-1002호

송상준 집사, 김수연 집사(6교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라아파트 205-1701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11.21) 뱀뱀전도회(11.28)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사명자대회

## 참 좋은 우리 아버지

양춘경 집사(1교구)



교회 설립 기념주일 50일전에 시작되는 사명자 대회가, 올해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명자 대회입니다.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시간인데도 계속해서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대단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칼빈의「기독교 강요」강해를 듣는 저로서는 일생일대의 큰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생에서 두 번 다시 접할 수 없는 좋은 말씀을 얻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대회 첫날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겨서 온 성도들이 애태우며 성대가 좋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후 둘째 날부터 목사님의 좋아진 목소리가 안심되어 말씀이 더 은혜로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셔서 예

수님께서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비하여 보잘 것 없지만 감사하고 순종하는 미덕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오로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2010 사명자 대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항상 함께 동행 하신 이종운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숙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준 구세주이신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참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될 2010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에 이종운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신, 오직“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 위하여
4.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교회외시는 길

